



[라이프]
간판 바꾼 'hy'
아쿠르트 넘어
신사업으로 '휠휠'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metro

코로나가 만든 교통변화... 통합요금제 확대, 손실관리 필요

코로나로 지하철·버스 이용객 줄고
따릉이·공유킥보드 사용자 늘어

신구 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
버스 대출금 관리 등 재정난 해소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이 줄고 서울시 공공자전거와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자가 늘었다. 이 같은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춰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서울시의회는 '예산과 정책 41호'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교통의 운영 및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와 시내버스 대출금 상환, 서울교통공사 손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가 서울시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손진영 기자 son@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1181만5000건에서 2020년 905만6000건으로 1년 새 23.4% 급감했다. 2021년에는 903만2000건, 올 3월까지 878만6000건으로 각각 2019년 대비 23.6%, 25.6% 감소했다.

서울시가 매년 조사하는 135개 지점의 일평균 양방향 교통량 자료에 의하

면 2019년 1058만6000대에서 2020년 1009만1000대, 2021년 993만1000대로, 2019년과 비교해 각각 4.7%, 6.2% 소폭 줄었다.

시의회는 도로교통량보다 대중교통 이용 감소율이 큰 것은 교통 수요 일부가 승용차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따릉이와 공유PM 사용자는 늘었다.

따릉이 일일 평균 이용 건수는 2019년 5만2074건, 2020년 6만4737건, 2021년 8만7683건으로, 2년 만에 68.4% 증가했다. 공유 PM 역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 서울시 따르면 전동킥보드 민원 건수는 2019년 31건에서 2021년 1776건으로 약 57.3배 뛰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변화는 대중교통에 악재로 작용했다. 온순현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이후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치 못해 시내버스 조합이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대출 원금과 이자비용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도 코로나로 이용승객

이 줄어 재정난이 심화됐다. 시의회는 공사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은 2020년도에는 1조1137억원, 2021년도에는 9644억원이 발생, 2019년도와 비교해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공사는 유동자산인 매출채권과 미수금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시의회는 제안했다.

온 조사관은 "우선 기존 대중교통과 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요금제(통합요금제)를 통해 승객 위주의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중교통 운영비 부족에 대한 은행 대출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무회계적 점검을 통한 면밀한 손실 관리로 운영비 전반에 걸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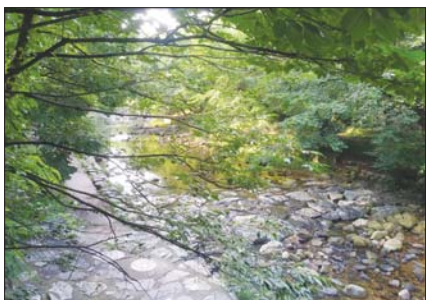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토지 소유자 세금 깎아주고 공원 개방

자연공원 내 부지사용계약 추진
해당 토지 재산세 100% 감면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시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가 상호 협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

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계약 체결시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이득을 보게 된다.

부지사용계약대상지는 등산·산책로 같이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 희망자는 해당 토지의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영테크' 후기 공모

서울시, 추첨 통해 음료쿠폰 제공

서울시는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서비스인 '영테크' 상담 후기 공모 이벤트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매일 진행되는 '도전하는 당신에게, 음료 쿠폰' 이벤트와 홀수달(7·9·11월)에 실시하는 '정성과 센스로 승부를 본다!' 두 개로 나뉜다.

시는달마다 시행하는 이벤트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30명을 선정,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홀수달에는 축적된 후기 중 우수 사례를 선발

해 1등에는 20만원, 2등에는 5만원, 3등에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 영테크 상담을 마치고 본인의 SNS에 상담 후기를 작성한 후 이름, 휴대전화 번호, 리뷰 링크 주소를 첨부해 서울 영테크 사무국 대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가자들에게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고 실습이 연계된 재무 교육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병물 아리수, 재활용 쉬운 '일체형 마개' 도입

잉크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마킹'도

서울시는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체형 마개'와 '레이저 마킹' 방식을 도입한 '친환경 병물 아리수'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병물 아리수에 적용된 '일체형 마개'는 개봉한 후에도 마개가 페트병에 부착돼 있어 분실의 염려가 없고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마개를 위쪽으로 세계 잡아당기면 절취부를 따라 분리돼 마개와 고리 모두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는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조일자 등의 마킹에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레이저 마킹' 방식을 도입했다.

친환경 병물 아리수는 일반 투명 페

트병과 같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별도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병물 아리수는 단수 및 재난지역에 제한적으로 보급된다. 올해는 서울시 생활치료 센터,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역 등에 병물 아리수 26만병을 공급했다고 시는 전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된 병물 아리수에 대한 변화로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5일 (수)
음력 : 5월 17일
수도권 날씨
16~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24, 동두천 14/25, 가평 14/23, 파주 13/24, 서울 16/26, 양평 16/25, 인천 17/24, 수원 17/25, 용인 17/25, 평택 15/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합계 2250만원' 축구화·유니폼 낙찰 팬들, 손흥민과 만난다
▲홀란드, 22년전 아버지와 같은 날에 맨시티 이적 완료

/사진 뉴시스

▲국제축구평의회, 교체 3명→5명...월드컵 엔트리 26명 확대 가능성
▲U-23 아시안컵 마친 황선홍호, 정상빈 등 6명 코로나19 확진



▲이대호의 마지막 도전...KBO 출신 프로 최다 안타에 '-47'
▲남자농구, U-16 표 챔피언십 첫 경기 카자흐에 30점차 승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